

보성 '웅치 올벼쌀' 가공산업 육성

향토산업 육성 사업 지구 선정 가공센터 건립 제품 개발 추진

전라남도 주관 2019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보성군 '웅치 올벼쌀 식품가공클러스터 사업'이 신규 대상지구로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

13일 보성군에 따르면 향토산업 육성은 농촌의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해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 된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웅치 올벼쌀'은 향토산업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향토 자원성, 산업화 가능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해 향토산업 육성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보성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4년간 웅치면 강산리 일원 62ha에 올벼쌀 종합가공센터 및 체험시설 건립,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보성군은 올벼쌀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체험·수출 등의 경제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 제71호로 등록된 웅치 올벼쌀은 순수한 찰벼만을 완숙되기 전에 수확, 전통방식의 가마솥에서 수증기로 찌서 햇볕에 건조하고 현미로 도정한 쌀이다.

고소한 맛은 물론이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고품질의 웰빙식품으로 향미

및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간식과 선식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은 전국 제일의 올벼쌀 재배지로서 향토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선상희 기자

내고장 사람들



이춘봉 진도군수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8시 20분 군청 부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유현호 보성군수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용익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9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황인섭 영암군수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8시 30분 군청 부군수실에서 간부공무원들과 목요티타임을 갖는다.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14일 오후 4시 장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047회 장성 아카데미에서 '논어, 인간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장성 도로변 잡목 제거 45개 구간 10km 작업

장성군이 도로변에 자라난 나무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던 잡목을 말끔히 제거했다.

장성군은 최근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변 등에 방치된 채 자라던 잡목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제거된 구간은 총 45개 구간, 10km에 이른다.

장성군은 이번 잡목 제거 작업이 운전자의 시야를 확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성지역 내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해야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에 군도뿐 아니라 지방도, 농어촌도로, 구국도를 포함했다.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타 시군과의 경계 구간, 비법정도로라도 군내버스가 다니는 도로까지 빠짐없이 조사했다.

/광양=정원희 기자

여수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특산물 가공·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여수시가 지역의 자원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여수형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해 육성한다.

여수시는 오는 20일까지 여수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 희망 법인을 모집한 후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법인은 약정체결과 사업비 교부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추진사업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특산물 가공,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등이다.

신청은 5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한 법인만 가능하다. 또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 차지해야 한다.

마을기업 지정을 원하는 법인은 기간 내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시 일자리정책관실(061-659-3598)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 후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마을기업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사업계획 발표, 심의회 최종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된다.

신청은 5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한 /여수=곽재영 기자

완도 기후변화 대응 머리 맞댔다

미세먼지·바다환경 변화·섬 지역 식수 해결 논의

완도군은 최근 기후변화 적응대책 분야별 TF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사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부문별 핵심과제로 선정된 해양·수산, 재난·재해, 건강 부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한 8개 부문 32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탄소 배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늘어나자 완도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탄소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환경을 모니터링,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식장 환경관리시스템을 현행 보다 증설하고 더욱 세부적인 사항인 염분 및 PH농도까지 관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완도군은 최근 군청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분야별 TF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사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은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에 따른 전복 피해방지를 위한 차광망 보급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최근 가뭄과 식수난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해수담수화 및 빗물 등을 이용한 식수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및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폭염대책과 집중호우는 관련 부서간 간담회를 추진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현식 완도군수 권한대행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실과소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욱 기자

수범프장 설치 및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폭염대책과 집중호우는 관련 부서간 간담회를 추진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현식 완도군수 권한대행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실과소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욱 기자

고이경모 선생 사진 디지털화 아카이브 작업으로 영구 보존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첫 지평을 연 이경모 선생의 사진이 디지털화돼 영구 보존된다.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은 최근 고이경모 선생의 아들인 이승준씨를 초청해 '고이경모 선생 사진 아카이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이경모 선생은 1926년 광양시 광양읍 인사리에서 태어났다. 우리나라의 격동기 역사를 사진으로 남긴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대한민국 사진계의 거장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정채봉과 친구들, 문학의 뜰' 사업으로 고이경모 선생의 유작으로 남아있는 작품들을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소실되지 않도록 디지털화한다.

또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방부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은 최근 고이경모 선생의 아들인 이승준씨를 초청해 '고이경모 선생 사진 아카이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변천사와 굵직한 사건 등을 담은 사진과 지금은 없어지거나 변화된 광양의 옛 모습들이 담긴 사진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준씨는 "광양시가 아버님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5,000여 장의 사진 원판 필름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서영동 문화산업팀장은 "한국 사진역사의 발자취와 역사적인 사진, 그리고 광양의 옛 모습 등을 담은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정원희 기자

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변천사와 굵직한 사건 등을 담은 사진과 지금은 없어지거나 변화된 광양의 옛 모습들이 담긴 사진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준씨는 "광양시가 아버님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5,000여 장의 사진 원판 필름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서영동 문화산업팀장은 "한국 사진역사의 발자취와 역사적인 사진, 그리고 광양의 옛 모습 등을 담은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정원희 기자



해남군이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 느린우편 우체통을 설치, 15일부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느린우편 보내기 체험을 선보인다.

땅끝에 가면 '느린 편지' 쓰세요

해남 땅끝마을 느린우편 우체통 설치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에 느린우편 우체통이 설치됐다.

해남군은 15일부터 땅끝마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느린우편 보내기 체험을 실시한다.

편지를 쓰고 싶은 관광객들은 땅끝전망대 매표소에서 엽서(500원)를 구입해 사연을 적은 후 느린우편 우체통에 넣으면 6개월 또는 1년 후 원하는 주소에서 받을 수 있다.

우체통은 한반도 모양으로 제작돼 전망대 입구에 설치돼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땅끝은 한반도의 최남단이라는 상징성으로 여는 관광지와 다른 감동이 있는 곳이다"며 "방문 당시의 감상이나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는 다짐 등을 담은 느린편지를 받으면 땅끝 방문을 오랫동안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소식



담양 부모 리더십 교육

담양군은 '부모의 가치탐구,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리더십'을 주제로 담양부모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부모교육 기본과정은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회복탄력 리더십', '자녀와의 행복소통법', '진로코칭을 위한 역량강화'에 대한 주제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다음달 4일부터 부모교육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며 "관심있는 학부모 및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광양 등지회 계곡 정화활동

광양시 옥룡면 등거리 청년단체인 등지회는 최근 백운산 등곡 계곡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소속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옥룡면 동동마을 입구부터 눈길까지 6.5km 구간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차석주 등지회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것은 물론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의 기회가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양=정원희 기자



목포대 총학생회 일손 돕기

목포대학교 총학생회 임원진과 재학생 40여명은 최근 무안읍 매곡리 발산마을 일원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 참가자는 매곡리 발산마을 농가의 양파와 마늘 수확작업을 함께 하며 농번기 바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농촌 일손돕기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발산마을 주변의 마을정화 활동을 펼쳤다.

/목포=강성우 기자



영암 건강지킴이 예방교실

영암군보건소는 최근 군서면 모정마을회관에서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예방교실'을 열었다.

건강지킴이예방교실은 고혈압·당뇨병·뇌졸중·관절염 예방관리 및 치매 예방법 등 다양한 건강교육을 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의 고위험군 발생을 감소시키고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심폐소생술도 실시했다.

/영암=최복섭 기자